



24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공연을 펼치는 바리톤 방대진.

“친숙한 외국곡 감상하며 마음치유 시간 가졌으면”

‘바리톤 방대진 독창회’

24일 전남대 민주마루 칸초네·상송·가곡 등

“이번 독창회는 중등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는 친숙한 외국곡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칸초네, 상송, 가곡 등 다양한 음악 장르가 공동체성 회복과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최근 유선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바리톤 방대진 씨의 말이다. 전남대 음악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바리톤 방대진 독창회’를 앞두고 있다.

방 씨는 “재난, 참사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독창회는 서정성을 자극하고 마음을 울리는 평화롭고 친근한 곡 위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상처받은 자아를 마주하고 아픔을 넘어서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올 만큼 광주·전남 음악계에도 관심이 많다. 2018년부터 광주오페라단 운영위원, 2020년부터 광주성악가협회 감사로 활동했으며 광주문화재단 광주성악공쿠르 운영위원(2020)을 거쳐 추진위원장을 역임(2021)한 이력도 눈에 띈다. 현재 한국성악가협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기도 하다.

전남대 학생처에서는 취업지원실 미래설계부장으로 재직하며 음악 활동을 지속하려는 학생들 진로 설

계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터라 방 씨는 학생들의 음악 교육 현장과 교육 철학에 관심이 많다.

그는 “이제껏 학교에서는 명예, 권력을 얻는 길을 가르쳤던 것 아닐까 생각하곤 한다”며 “이와 관련 없는 문화, 예술, 철학적 교과목들은 비교적 소외되면서 일부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들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이어 “클래식 공연과 음악교과 모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안목을 길러준다고 믿고 있다”며 “이번 독창회를 계기로 더욱 성찰해 음악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음악교육자로서 사명감까지 갖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토벤이 작곡한 독일 가곡 ‘네 맘처럼 나도 널 사랑해’, ‘입맞춤’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슈베르트 ‘밤인사’, ‘보리수’ 등 서정적인 곡으로 이어진다. 교활한 마왕과 공포에 떠는 아들의 모습을 목소리로 형상화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슈베르트 명곡 ‘마왕’도 가곡 버전으로 올려 퍼진다.

관객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로 치유하기 위해 이탈리아 민요 ‘칸초네’도 들려준다. 코트라우 곡 ‘산타 루치아’나 카푸아 ‘오 솔레 미오’ 등은 각종 오페라나 뮤지컬 등에서 자주 만날 수 있던 흥겨운 성악곡이다.

이외 커티스 ‘돌아오라 소렌토로’, 토셀리 ‘탄식의 세레나데’나 프랑크 상송 ‘당신을 원해요’, ‘사랑의 찬가’와 한국 가곡 ‘첫사랑’, ‘나 하나 꽃 피어’ 등이 준비돼 있다. 대부분 교과서 수록곡으로 이탈리아부터 프랑스까지 다양한 언어를 넘나드는 구성이 눈길을 끈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방 씨는 이태리 비첸차 Arrigo Pedrollo 국립 음악원(수료), 프랑스 니스 국립음악원 여름 국제학교·스페인 바르셀로나 Francesco Vinas 재단 프랑스 및 독일 가곡 연주자 과정 디플롬을 받았으며 파리 국립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했다.

피아노 협연자로 서울대, 미국 인디애나대(석사), 뉴저지 주립대(박사)를 졸업한 박은식이 출연할 예정이다.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 씨는 서울신인음악공쿠르, 중앙공쿠르 등에서 입상했으며 KBS 교향악단, 인천시향, 원주시향 등과 협연했다.

전석 2만 원(학생 50% 할인), 인터파크 티켓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나의 연인 자작나무’

은빛 자작나무 숲 아름다움 속으로

신선 작가 초대전, 2월 3일까지 갤러리 총장22

이맘때 떠오르는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순백의 옷을 입고 있다. 깊은 사색에 빠진 철학자 같기도 하고, 자신만의 창작 세계에 몰입한 시인의 분위기도 묻어난다.

겨울 눈 덮인 산자락에 서 있는 이 나무는 세상을 달관한 현자의 모습을 닮았다. 바로 자작나무다. 은빛의 자작나무는 많은 이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선사한다. 추운 북유럽에 많이 자생하는 터라 고풍과 우울, 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한다.

동구 총장로에 자리한 갤러리 총장22에서 전시 중인 ‘나의 연인 자작나무’전(2월 3일까지). 신선 작가 초대전으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자작나무 숲이 환기하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표현했다.

작가는 지난 2017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다 봤던 자작나무 숲의 강렬한 인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 같은 모습의 자작나무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한과 아름다움 등 복합적인 느낌이 배어 나왔다.

신 작가는 “스탈린 정권 하 중앙아시아로 추방됐던 고려인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며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은은한 미를 발하는 자연의 위대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작가는 강원도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았다. 나무들과 깊은 교감을 했고 창작으로 발현됐다.

전시 주제에서 보듯 작가는 자작나무를 ‘연인’으로 상징한다. 마음과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각각의 그림들은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 오래도록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작품들이다. 추운 겨울 화폭 속 자작나무가 건네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도 힐링의 한 방법일 듯하다.

신선 작가는 호남대 문화예술경영학으로 박사를 수료했으며 현재 미술학과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개인전 16회와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드보르작·라벨...서정적 클래식 선율

여수 GS칼텍스 예음마루 16일 ‘2025 신년음악회’

지휘자 최수열, 첼리스트 문태국(사진), 한경 ARTE필하모닉 등... 주목받는 교향악단과 예술가들이 신년을 맞아 협동 무대를 선보인다. 여수 GS칼텍스 예음마루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음마루 대극장서 펼치는 ‘2025 예음마루 신년음악회’에서다.

공연의 막은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Op. 104’로 연다. 세계 3대 첼로 협주곡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작품으로, 그의 미국 체류 경험과 슬라브 문화가 결합해 협주곡에 새로운 영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드문 편성인 3대 트롬본을 사용한 점, 2악장에서 부각되는 오보에와 파곳의 서정적인 분위기 등이 이목을 끈다. 이 외에도 라벨 ‘블레로’를 비롯해 라벨 ‘라 발스-관현악을 위한 무용시’ 등이 올려 퍼진다.

서울시향 부지휘자를 거친 뒤 부산시향 예술감독으로 일한 최수열이 지휘봉을 잡는다. 고전부터 동시대 음악을 아우르는 그의 레퍼토리는 예술의전당 기획 시리즈 ‘최수열의 밤 9시 즈음에’ 등에서 관객들을 사로잡아 왔다.

협연에 나서는 첼리스트 문태국은 제15회 성정전 국악공쿠르 최연소 대상,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공쿠르 우승,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첼로공쿠르(4위) 등 주목받는 예술가다. 2004년 금호영재 독주회를 시작으로 정명훈 지휘의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2023년 한국음악상 ‘젊은 음악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시향 지휘자 등을 역임한 홍석원이 음악감독을 맡았던 한경arte필하모닉도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2018년 세계 최고 실내악단 이무지치와 합동 공연을 열어 큰 관심을 모았으며, 전국 도시를 투어하



며 문화 소외지역에 예술 향유 기회를 선사했다.

예음마루예술사업팀 황세웅 담당은 “고향을 그리는 애뜻한 마음을 담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부터 끊임없이 고조되는 라벨의 ‘블레로’, 현란한 춤사위가 깃든 라벨의 ‘라 발스’까지 세 가지 음악 물결이 관객들을 찾아간다”며 “첼로의 깊은 울림과 블레로의 중독적 리듬, 라 발스의 현란한 오케스트레이션 경험을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R석 7만 원, A석 3만 원 등, 인터파크 티켓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카리바조의 그림자’

예술영화 ‘카리바조의 그림자’·‘애니멀 킹덤’

22일 광주극장 개봉

광주극장에 두 편의 예술영화가 오는 22일 동시에 개봉한다. 각각 미술과 재단세계를 개성 있는 필치로 그렸으며 바로크 시대의 예술관, 재단 시대를 조점화한 판타지 드라마다.

먼저 미켈레 플라치오 작 ‘카리바조의 그림자’는 오늘날 카리바로 널리 알려진 미켈란젤로 메리시의 삶을 다뤘다.

17세기 바로크 미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로, 극명한 명암 대비를 중시하는 테네브리즘 화법을 통해 사실주의 회화를 개척했다.

작중 살해 혐의를 받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카리바조는 로마 교외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는다. 교황청은 그의 사면 자격을 조사하려 비밀리에 추적단 ‘그림자’를 파견해 뒤쫓는다.

미술평론가 로베르트 퉁기는 영화에 대해 “카리바조가 없었다면 리베라, 베르메르, 그리고 렘브란트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그의 예술세계를 상찬한 바 있다. ‘존 워’에서 주역을 맡았던 리카르도 스카마르치오와 ‘작은 아씨들’의 루이 가렐 등이 출연.

‘미스터리 판타지 드라마’ ‘애니멀 킹덤’도 같은 날 스크린에 걸린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어느 날 ‘동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인간이 동물화되는 세상, 주인공 에밀



‘애니멀 킹덤’

은 모든 게 혼란스럽고 프랑수아는 그런 아들을 지키려 노력한다.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려던 어느 날 에밀은 출입이 금지된 숲 하나를 발견하는데...

영화는 제76회 칸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개막작으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시네마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제49회 세자르 영화제에서는 5관왕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시선을 압도하는 비주얼로 예술, 삶 전반을 성찰하게 하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인공들이 강렬한 메시지를 선사할 것이다”고 했다.

성인 1만 원, 디트릭스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도시화와 지나친 경쟁 문화가 낳은 ‘외로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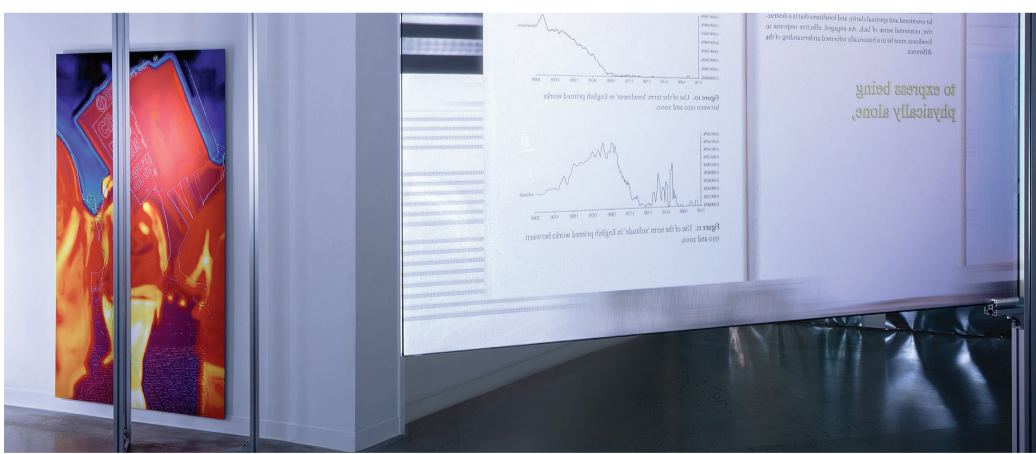
동곡뮤지엄·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18일 ‘외로움의 지형학’ 학술포럼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외롭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 심화 경쟁 속에서 점차 본래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하나의 병으로 치부할 만큼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개인적 성향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외로움’과 관련한 학술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18일 오후 2시 동곡뮤지엄에서 열리며,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과 공동 개최된다. 특히 이번 학술 포럼은 얼마 전 막을 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전시 ‘외로움의 지형학’과 연계돼 펼쳐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소의 큐레이터가 기획한 포럼은 유승규(안무서운회사 대표), 김효진(WISH BUILDER대표), 백희정(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책임자), 서영석(연세대학교 교수), 최은수(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정소의 예술감독은 “이번 포럼은 도시화, 지나



동곡미술관 전시실 장면.

〈동곡미술관 제공〉

친 경쟁 문화가 낳은 외로움의 문제를 다각도로 주목한다”며 “정년 당사자의 외로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담 형식의 포럼에서는 4개국 리서치 결과를 설치미술로 선보인 ‘외로움의 지형학’ 전시 참여 작가인 레베카 모치아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참여한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포럼 논의 내용은 향후 출판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예술과 학문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복지의 사각지대를 밝히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 및 문의는 동곡미술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